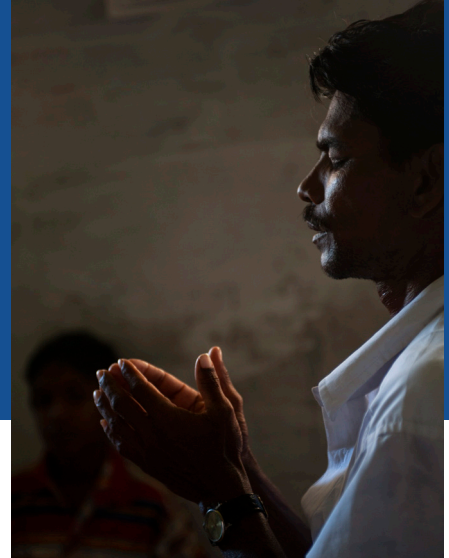


기도주간 · 5일

12월 3일, 목요일



박해

175년의 역사 내내 남침례교는 기근, 전쟁, 내전에도 불구하고 열방들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이 헌신은 희생을 댓가로 이어져 온 것입니다.

국제선교부는 (전 해외 선교부) 1845년 창립 이후 약 60여 명의 선교사들과 자녀들이 폭력적인 상황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 원인으로는 익사, 자동차 사고, 항공기 추락 사고, 해상 선박 사고 등이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사망과 범죄 또는 테러 행위 등도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신앙이나 선교활동 때문에 구체적인 표적이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60명 가운데 20명 이상의 FMB/IMB 선교사들이 “다른 문화 (국제적)의 환경 가운데서 인간의 적개심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습니다”라고 IMB의 글로벌 연구팀의 스코트 피터슨은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중국에서 섬겼던 J. 랜드럼 홈즈였습니다. 홈즈와 그의 아내 샬리는 1858년 해외 선교부에서 임명을 받고 1859년에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도 채 지나지 않아 태평천국의 난 폭도들은 홈즈와 성공회 선교사 헨리 M 파커를 살해했습니다. 피터슨은 2017년 기고문에서 “가족들이 샬리 홈즈에게 미국으로 돌아올 것을 독려했지만 젊은 엄마였던 샬리는 갓 태어난 아들과 함께 중국에 머물 것을 선택했습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당시 샬리는 집에 편지를 쓰면서 “내가 아마 이곳에서 보다 본국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만일 그런 일을 위해서 제가 본국으로 돌아가고 다른 선교사들도 같은 이유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중국에 선교사가 남아있을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망 원인과 관계없이 현역 선교사로 숨진 우리 선교사들을 모두 추모합니다.

스코트 피터슨, IMB 글로벌 연구팀

생명을 바친 이들을 기억하다.

imb

라티 문 크리스마스 헌금

imb.org/lmco



샬리 홈즈는 IMB의 가장 유명한 선교사 중 한 명인 샬롯 딕스 “라티” 문에게 그 영향을 끼쳤습니다. 라티 문 또한 현역 선교사로 섬기다가 1912년 12월 24일 일본 고베 항구에 정박된 배 위에서 순교했습니다.

비록 랜드럼 홈즈와 라티 문 두 사람 모두 현역 선교사로 섬기던 중에 순교했지만, 두 분 다 꼭 ‘순교자’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피터슨은 “IMB는 일반적으로 현역 선교사로서 섬기다가 순교하신 저희 선교사들을 순교자로 지칭하지 않습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많은 경우에 저희 인원이 선교사나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표적이 되었는지 (폭력적인 방법으로 순교했는지) 판단하기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어렵습니다” 라고 전합니다.

용어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수단이나 원인에 관계없이 다른 문화권에서 사역을 하시다 사망한 사람들의 희생은 신앙 때문에 특별히 표적이 되어 순교하신 사람들의 죽음만큼 값진 것입니다.

피터슨은 “우리가 [순교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다른 문화권에서 사역하시다가 사망한 사람들의 삶과 희생의 중요성을 약화시키지 못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이어 “사망 원인과 관계없이 현역 선교사로 숨진 우리 선교사들을 모두 추모합니다. 각각의 죽음 하나하나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살아간 생명의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녀들과 함께 땅 끝까지 찾아가는 선교사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75년 동안 중단 없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남침례교의 복음증거 사역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전 세계의 여러 종족들과 세계 어려운 지역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그들의 가족을 위하여 기도해주세요.

생명을 바친 이들을 기억하다.